

## 전통수의침구학

# 수양명대장경(手陽明大腸經)과 사총혈/육총혈

강무숙  
동물제증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 1. 대장의 기능과 수양명대장경

#### 1.1 대장의 기능

대장은 소화기 중에 마지막에 위치하며 1.5m 길이의 관 모양의 장기이다. 맹장·결장·직장·항문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화된 찌꺼기로부터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변 때까지 보관하여 대변 형태로 봄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의학에서는 대장大腸을 일명 회장迴腸 또는 광장廣腸이라 하는데, 척脊(=척추)에 붙어서 소장小腸의 조박糟粕(=찌꺼기)를 받고, 제臍(=배꼽)로부터 우측右側으로 돌아서 상하上下로 쌓여 있고 아래로는 항문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생리기능에 대한 인식으로는 “대장자大腸者, 전도지관傳導之官變化出焉변화출언”<sup>1)</sup>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장은 전도지관으로써 변화시켜 배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도란 전달·인도의 뜻이고, 변화란 소화·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를 대변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전도지관傳道之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찌꺼기들이 대장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배출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하여 관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국가에 있어서 환경이나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활에서 발생된 오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대장이 대사과정을 거치고 남은 찌꺼기를 전달하고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겼다.

한의학에서 대장은 기능적인 연관성에서 폐와 한 짝을 이루는데, 이러한 관계를 표리관계라고 한다. 대장은 소장에서 내려온 찌꺼기를 대변의 형태로 체외로 배출하는데, 폐는 호흡을 통해 외부와 접촉을 하고 대장은 배변운동을 통해 외부와

직접 접촉되는 관계로 폐와 대장을 같은 기능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장의 병변이 폐에 영향을 주며, 폐의 병변 또한 대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전통수의학 서적인 사목안기집司牧安驥集에서도 대장을 “전송지부傳送之腑”<sup>2)</sup>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전송지부라는 말도 역시 전달하고 수송하는 장기라는 의미이다.

대장의 생리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변비, 설사, 복통, 뱃속에서 소리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장의 기운이 부족하면 전달 기능이 무력해져서 허증 변비가 되고, 대장에 열熱이 있으면 진액이 폐말라 변이 굳게 되니, 허증 변비에는 대장의 운동기능을 올려주면서 촉촉히 적시는 방법을 쓰고 열로 인한 변비에는 열을 제거하면서 촉촉이 적시는 방법을 써야 한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습열濕熱이 대장에 쌓이게 되면, 대장의 기순환이 좋지 않아 복통이나 이급후중이 나타나고, 대장의 기혈이 손상되면 혈변이나 점액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병리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궤양성 병변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다.

#### 1.2 수양명대장경

수양명대장경을 전통수의학에서는 전양명대장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락의 흐름은 앞발의 발등쪽에서 시작하여 요골 배측을 따라 슬관절과 견관절을 지나 견갑 앞쪽에서 흉곽쪽으로 향하여 폐와 횡경막을 지나고, 대장에 속하게 된다. 목 부분에서 갈라진 분지는 목을 따라 올라가 하악의 잇몸을 지나서 입술주위를 빙 돌아 코 아래서 교차된 후, 코 양옆에서 위경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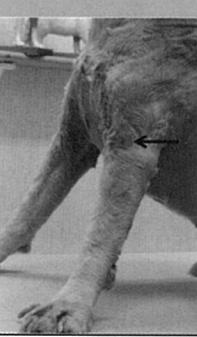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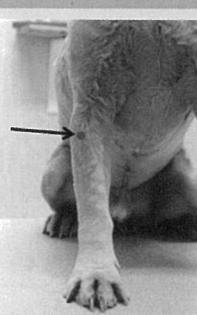
사람의 수양명대장경은 20개의 혈자를 가지고 있고, 말은 6개, 소/돼지/양/낙타는 5개, 개/고양이/토끼는 7개로 알려

져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현대에 와서는 해부학적 구조를 비교하여 동물에서도 사람처럼 20개의 혈자리를 응용하기도 한다. 특히나 합곡, 곡지와 같은 혈은 그 쓰임새가 많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익혀두면 전통수의학 임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실제 소동물임상에서 자주 쓰이는 혈자리만 소개하기로 한다.

## 2. 사총혈四總穴과 육총혈六總穴

합곡 LI-4	한자풀이 : 낮아서 우뚝하게 빠진 모양이 골짜기 같다. -원혈 유풍혈, 경맥의 막힘을 풀어줌, 폐기의 순환을 도움	
	혈자리 위치	효 능
	첫째와 둘째 앞발허리골 사이	주로 입과 얼굴부위의 질환을 치료한다. 구강염, 발열, 피부병, 머리와 목 통증, 앞다리와 어깨 통증, 침술마취, 신경성 피부염,
곡지 LI-11	한자풀이 : 구부러지고 함몰된 부위가 마치 연못과 같은 혈자리 / 합혈, 신체의 풍과 열을 제거, 영양과 관계있는 기와 혈을 조절	
	혈자리 위치	효 능
	앞쪽 외측 앞다리굽이관절 요골쪽앞발목펴짐근 내측	앞다리 굽이와 앞다리 통증, 신경성 피부염, 피부질환, 내분비 질환, 열질환, 면역질환, 치통, 눈과 목의 통증, 복부 통증
수삼리 LI-10	한자풀이 : 팔꿈치에서 3치 떨어진곳.	
	혈자리 위치	효 능
	요골쪽 앞발목 펴짐근 내측, 앞다리의 근위 1/6의 원위쪽 끝	면역조절, 기보충, 어깨와 앞다리의 통증 또는 마비, 앞다리 굽이 관절염, 설사
영향 LI-20	한자풀이 : 향기를 받아들이는 혈자리 -풍제거, 비강을 열어줌	
	혈자리 위치	효 능
	콧방울 외측	주로 코질환에 이용. 비염, 비출혈, 안면마비, 열

사총혈의 총은 개팔, 총팔의 뜻이 담겨있으며 십이정경과 기경팔맥 소속의 많은 혈의 효능을 4개의 혈에 귀납시켜 각기 머리, 안면, 복부, 등과 허리 등 질환을 치료하므로 사총혈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정희철, 손인철 사총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6;13(1):292-306.

임상에서 가장 많이 응용되어온 혈위로, 전통수의학에서도 응용되어지고 있다.

사총혈은 임상치료시 중요하게 응용할 수 있는 전지 2혈, 후지 2혈로 이루어진 4개의 혈위인데, 예로부터 오랜기간 쌓아온 임상 경험의 결과물로 침구학 관련 서적인 《건곤생의 乾坤生意》, 《침구취영鍼灸聚英》에서는 신체를 크게 네 부위로 나누고, 이 부위마다 주치혈을 각각 하나씩 두었는데 족삼리(위경), 위중(방광경), 열결(폐경), 합곡(대장경)이 바로 사총혈이다. 이 혈들은 온 몸에 펼쳐 있는 모든 혈들에 비하여 치료 범위가 매우 광범한 뿐만 아니라 한·열, 허·실 및 급성·만성을 막론하고 각기 독특한 작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4총혈이라고 한다.

여기에 치료효능이 강한 2개의 혈위를 추가하여 육총혈이라 하여 임상에서 응용하고 있다.

### 표1. 사총혈과 육총혈

치료부위	사총혈	육총혈
머리	열결	열결
안면(구강 포함)	합곡	합곡
등	위중	위중
복강(위장 등)	족삼리	족삼리
흉강(심장, 평부)		내관
비뇨생식기		삼음교

사총혈에 속한 4개의 경혈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증조절, 소화기능 개선에 대한 보고가 많았으며<sup>4)</sup> 이러한 결과는 임상에서 사총혈의 효용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

1) 『素問·靈蘭秘典論』說,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2) 『司牧安驥集卷二·馬師皇五臟論』說, “...大腸爲傳送之腑....”

3) 정희철, 손인철 사총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1996;13(1):292-306.

4) 정현종. 사총혈 관련 국내 연구 정리 분석. 경락경혈학회지. 2010;Vol.27-No.3:119-127